

아침 초대석

개국 1주년 맞은 광주영어방송 김원욱 사장

“생명 존중하는 사회돼야”

정진석 추기경 부활절 메시지

“광주·전남 국제화도시 만드는데 보탬 되겠다”



“2015광주 U-대회와 여수세계박람회 등을 준비하는 광주·전남지역을 국제화 도시로 만들기 위해 광주영어방송이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시민과 외국인 등 100만명이 듣는 영어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월1일 개국 1주년을 맞는 광주영어방송(GFN)의 김원욱 사장은 “‘시민 만족 영어방송’을 올 한해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영어방송은 광주·전남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과 거주 외국인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영어를 통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문화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개국한 호남 유일의 지방 공영 영어 전용 라디오 방송이다.

지난해 4월1일 개국했으며 광주시와 목포·나주·담양 등 모두 13곳에서 98.7MHz로 들을 수 있다. 개국 1주년을 맞아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2시간 늘리는 확대 편성을 했으며 가정지역도 점차 넓혀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체제작 프로그램이 기존 5개에서 6개로 증편했다.

학생 퀴즈대회·소년소녀합창단 창단

김 사장은 “정규 프로그램 외에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퀴즈대회나 토론대회, 소년소녀 합창단 등을 창단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영어방송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13명이라는 적은 인원과 최소의 비용으로 방송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고 시민과 외국인들 사이 소통의 장구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오는 2011년까지 전남 전역은 물론 전북 일부지역까지 가정지역을 확

대할 방안이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맞아 광주·전남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길잡이 노릇은 물론 거주 외국인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여수세계박람회와 광주 U-대회를 위한 통역사 선발대회를 개최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람회 찾는 외국인 길잡이 노릇 할 것”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서울·부산·광주영어방송의 청취율(외국인 대상) 조사결과 광주가 36%로 서울(26%)과 부산(25%)보다 높았다. 외국인과 교류를 다양화 하고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 전달에 있어 좋은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다. 광주영어방송은 올해 외국인과 광주시민들의 청취율을 공동으로 조사해서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기자출신으로 전남매일(광주일보 전신)에 입사한 후 부등일보 편집부장을 거쳐 광주매일신문 편집국장 겸 전무이사, 사장, 부회장을 지냈다. 현재 광주영어방송 뿐 아니라 광주비엔날레 감사,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유니버시아드 대회 집행위원, 광주 빛고을 장학재단 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김 사장은 “영어방송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광주·전남의 참모습을 알리고 시민들에게는 영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필성기자 kps@kwangju.co.kr
/사진=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은 내달 4일인 부활절(부활대축일)을 앞두고 30일 ‘2010년 부활 메시지’를 발표했다.

정 추기경은 메시지에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며 시대와 종교를 넘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며 “미래의 행복한 사회로 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도 생명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해마다 신생아 수의 두 배가 넘는 150여만 건의 인공낙태가 자행되고 있다고 추산된다”며 “인공낙태 방지를 위한 일부 용기있는 의료인의 활동은 큰 희망을 준다. 법국민적 의식의 변화와 정부의 관계기관의 효율적인 정책결정과 입법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생명 경시와 반 생명의 문화는 우리 사회가 물질중심의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한 사람의 생명도 소외됨 없이 존중되고 보호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은 내달 4일인 부활절(부활대축일)을 앞두고 30일 ‘2010년 부활 메시지’를 발표했다.

문말린 ‘사랑의 씨든 수녀회’ 총장

광주명예시민 됐다

문말린(Marlene Mondalek·69·사진) ‘사랑의 씨든 수녀회’ 총장이 광주명예시민이 됐다.

광주시는 3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출신으로 지난 1968년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파견돼 30년간 지역사회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 광주시의회 동의를 얻어 문말린 총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문말린 총장은 강진에서 가난한 농어촌 여성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장애인들을 위한 ‘광주은혜학교’와 ‘씨든어린이집’을 설립했으며, 사회복지시설과 교육시설, 성당에 수녀들을 파견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1980년 5·18민주화 운동 당시에는 ‘수녀기도모임’을 주도했으며, 1997년 이후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광주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해마다 12만2천달러(1억4천여만원) 이상을 후원하고 있다.

광주시는 시장 각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외국인들과 재외동포, 다른 시·도 출신 주민 중 의회 동의를 얻어 명예시민을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광주명예시민은 문말린 총장 포함 외국인 51명과 내국인 11명 등 모두 62명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국제제 광주위원회 회장 추대

김영관(62) 교수가 국제제 한국본부 광주위원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국제제 한국본부 광주위원회는 최근 2010년 총회를 갖고 1, 2대 김 총회장에 이어 희곡분과 김영관 교수를 제3대 회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위원회 회장으로 추대된 김영관 교수는 오는 2012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제 세계대회를 앞두고 “광주의 문화인들이 좋은 작품을 창작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과 영시 낭송회와 번역 등을 통해 지역 문화인들의 활동이 국제 교류로 이어 지도록 적극 앞장 설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장에

김권섭 전남대 입학관리본부장(약학과 교수)이 최근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회신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1년 3월까지 1년 간이다.



광주일보-굿네이버스 ‘인재육성 업무 협약식’

광주일보(사장 유재철·왼쪽서 다섯번째)와 굿네이버스 광주지부(지부장 김 진·왼쪽서 네번째)는 30일 오전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주일보 16층 회의실에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치과의사가 골수 기증 사랑 나눔

한수일 화순군보건소 보건의

공중보건의로 근무중인 치과의사가 백혈병 환자를 위해 자신의 골수를 내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주인공은 화순군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중인 한수일(26·왼쪽)씨. 그는 지난 2월22일 말초조혈모세포를 채취, 환자에게 제공해 꺼져가는 한 생명을 되게 했다.

한씨가 골수를 기증하게 된 것은 지난 2008년 가



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조혈모세포은행에 조혈모세포 공여자로 서약했기 때문이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네팔 트랜스 히말라야 미답봉 히무롱

영호남 산악인들 ‘한국 초등’ 도전

신루트 개척... (주)콜핑 협찬

영호남 산악인들이 네팔 트랜스 히말라야의 미답봉 히무롱(Himulung Himal·7126m) 한국 초등과 ‘코리아 신루트’ 개척에 도전한다.

‘2010 한국 히말라야 히무롱 원정대’는 다음달 3일 오후 7시 울산 문수경기장 컨벤션홀에서 발대식을 열고 12일 네팔 카트만두를 향해 장도에 오른다. 히무롱봉은 네팔 안나푸르나(8,091m)와 마나슬루(8,163) 산군 북쪽 트랜스히말라야산맥에 위치한 7,000m급 봉우리. 1998년 일본 원정대가 처음 정상을 밟았다. 한국에선 아직까지 등정자가 없다.

(사)대한산악연맹 울산광역시연맹(회장 박만영)이 주최하는 이번 원정의 대원들은 대구·울산·경남·광주·제주산악연맹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15명으로 구성됐다. 광주에서는 전국야박·빙벽등반대회에서 6차례나 우승한 황평주(38) 광주시산악연맹 산악구조대원이 참여한다.

이번 원정은 (주)콜핑 박만영 대표이사께서 울산연맹 회장을 맡으면서 해외원정등반 활성화와 영호남 산악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됐다. 단장을 맡은 박 사장은 “영호남의 산악 유망주들이 참



박만영 단장 황평주 대원

여한 만큼 한국 산악계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험한 자제로 자연에 순응하며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원정대장은 에베레스트와 로제, 가셔브롬II, 아마다블람 등을 등정한 이상배(56)씨가 맡았다. 이 대장은 “같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8,000m급 거봉은 아니지만 한국 초등과 신루트 개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등반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원정”이라고 평가했다.

대원들은 이번 원정을 위해 한라산 등지에서 강도 높은 설상·빙벽훈련을 통해 총출력 팀워크를 다져왔다. 이번 원정은 대한산악연맹이 후원하고 (주)콜핑과 부산은행 등이 협찬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환측

▲정원근·김경숙씨 장남 경훈군 전익수((주)쌍화)-박영순씨 차녀 영미양=4월3일(토) 오후 1시 메리 에트레딩홀 1층(사파이어홀)

▲윤순임씨 오남 김오군 김한식·김화자씨 조카 김정자양=4월3일(토) 광주경복궁웨딩컨벤션 1층(경복궁홀)

▲유용대·박미숙씨 차남 민원군 김생욱·허순심씨 장녀 미령양=4월4일(일) 낮 12시 완도군 완도읍 다리아에식당

동창·동문회

▲구림초등학교 49회 동창회(회장 신원장)=4월3일(토) 오후 5시 구림초등학교 운동장. 010-8200-8282.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강열) 월례회=4월5일(월) 오후 6시 금강산식당 062-224-0808.

종친회

▲동래정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정한영) 부산 화지 시조 선산 한식행사 참례=4월6일(화) 오전 6시 30분 광주상록회관 앞 출발. 010-9615-8567.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신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증 지참.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습관성 도박(경마, 인터넷 도박, 사행성 오락게임, 주시 등) 관련 전문상담 치료실시=본인 및 직계가족 포함. 상담치료와 입원치료 전액 무료. 전문심리상담가와 임상전문가가 직접 상담. 광주심리상담연구소. 062-527-3400, 3403.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등 상담. 062-363-0442~3.

모집

▲오치 배드민턴 클럽 회원 모집=오후 7시30분~10시 30분까지 우산중학교 체육관. 010-3624-2141.

▲문정 배드민턴 클럽 회원 모집=오후 7시30분~10시30분까지 문

산초·중학교 체육관. 010-3624-2141.

▲(사)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광주본부 아마추어무선(HAM) 입문 무료강좌=4월10일(토) 오후 2시 북구 신안동 730-3번지 3층. 062-512-5973.

▲색소폰 교육회원 모집=매주 월요일 오후 6~8시 동구 문화센터. 062-225-8700.

▲진일요양보호사 교육생 모집(국비지원, 능력개발카드 소지자 혜택)=주간반(오전 9시~오후 5시50분), 야간반(오후 6시30분~10시) 062-653-6690.

▲GS 피부미용, 네일아트 학원 교육생 모집=피부 국가자격증반, 네일아트,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등 자격증반·취업반·강사반 등 모집, 서구 상충동 5·18문화센터 맞은편. 062-381-5051.

▲김 양식장·김 공장·선원 일하

실 본 모집=초보자·경험자 우대, 7명 급구함, 숙식제공, 남구 백운동 백운광장 백운파출소 부근. 062-671-3693.

▲광주FC 축구회원 모집=자영업, 직장인 20~50대 참여 환영, 매주 토요일 오후 윤암동 인조잔디장. 010-6495-5728.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 모집=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혼성 합창단 모집. 062-675-5955.

▲전남담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 모집=담양 거주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로, 시골유동,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부음

▲정삼채씨 별세 경환·재경·경천·경민·형욱·미숙·성숙씨 부친상=발인 4월1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정병수씨 별세 도진·연주·홍주씨 부친상=발인 4월1일(목) 조선

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이영례씨 별세 신영식·영철·동연·복순·오례씨 모친상=발인 31일(수)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윤금자씨 별세 이원일·원형·희숙·성숙·수진씨 모친상=발인 31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강대현씨 별세 지원·강욱·수정씨 부친상=발인 31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마음까지 편안함 - 금호장례식장 ☎ 227-4000

故 류길남(남/78세)

주자	유재철/김수희
차자	류광우/안철, 류재하/류상현
장기	영락공원

故 김삼철(남/74세)

주자	김대현/한민희, 김대진
차자	김대진
장기	영락공원

심각인원의 명복을 빌립니다.

백운주식장 - 경리할 음식!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약속!

프리드 대한민국장례문화

현대종합상조가 책임지겠습니다.

가입문의 1566-4499

한대종합상조 전국모범 노주현